

## 투데이

영 챠시 플라워쇼 2관왕 곡성 출신 황지해씨 현지 인터뷰

## “기적같은 일…광주일보·기업 메세나로 꿈 이뤄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운 정원 알려 기뻤다”

“광주시와 광주일보, 지역 기업들의 후원으로 전 세계에 우리 나라를 분단국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원시림을 가진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

180년 전통의 영국 챠시 플라워쇼(Chelsea Flower Show 2012)에서 2관왕에 오른 곡성 출신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씨는 3일(현지시각) 런던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품제작에 도움을 준 지역 기업들과 지역민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황씨의 작품 ‘고요한 시간(Quiet Time)-DMZ 금지된 화원(Forbidden Garden)’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왕립원예협회(RHS) 주최로 열린 챠시플라워쇼에서 ‘쇼 가든’ 부문 금메달(2등상)과 올해 신설된 회장 특별상을 동시에 받은 영예를 안았다. RHS 회장상은 정원과 원예, 플라워쇼 등 모든 참가 부문에서 회장이 선정한 작품에 주어진다.

그는 특히 자신의 사례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원 조성비 마련하느라 힘든 상황에서도, 2관왕에 올랐다.



▲솔직히 본격적인 정원 조성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후원 기업을 찾느라 작품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상황에서 수상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쁠도 훨씬 컸다. 지역 기업들과 광주시민들이 힘써준 덕분이다. 고마움 잊지 않고 작품 활동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

-수상 이후 뭐가 달리였다.

▲영국은 정원 문화가 발달한 나

라여서인지 거리에서 알아보거나 DMZ 정원을 본 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기존에 분단국으로 인식됐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국내 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도움을 준 사람들은 많았다.

▲복이 많은 것 같다.(웃음) 영국 로이터통신 전 회장 로더미어(Rothermere) 자작 부인은 찰스왕 세자와 넬슨만델라 등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했다. 너무 감사하다. 영국군 참전용사협회도 온 오프라인에서 주도적으로 모금 운동을 펼쳤고 정원을 조성하는 기간 식사를 제공하거나 흙을 기부하는가 하면, 작품 조성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가드너’(gardener)도 많았다.

-DMZ 정원을 영구 보전하기로 했다던데.

▲이번 작품은 60년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천혜의 식생이 숨쉬는 원시림으로 소생한 DMZ를 통해 평화를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 플라워쇼에서 작품을 둘러본 에드워드 왕자 등으로부터 보전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 전 세계에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

우선 오는 30일부터 9월까지는 영국 플레저 파크에서 작품을 계속 전시한다. 이후 올림픽이 끝나면 영국에서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올림픽 파크(기념)’을 조성하는데 여기 한 공간에 DMZ 정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원 조성을 앞두고 영구 보전을 위한 기증 의사 를 물어왔지만 시기나 규모, 조성 예산 등으로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이 컸다.

▲시간에 쫓기면서 불안감도 적지 않았는데, 광주일보 보도 이후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광주민의 저력을 느꼈다. 특히 정원 조성 분야는 국내 문화계에서 생소한데다, 대부분의 기업 메세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져 지역 작가들에게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른 없다. 작품제작에 헌신했던 남광 건설과 호반건설, 광주시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능력있는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 자발적인 기업 메세나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문화 예술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런던=김지율기자 dok2000@



### 6·10민주항쟁 25돌…열사 가족들의 만남

10일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25주년 기념식에서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순옥(맨 왼쪽)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 전 전국민족민주유기족협의회 회장과 고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기족협의회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20호 미만 ‘미니마을’ 780곳

### 전국 3000곳 돌파…전남·북에 절반 이상 쏠려

전남지역 780개 마을이 가구 수 20호 미만인 ‘과소화마을’이며, 전북은 과소화마을 비율이 20%를 넘어서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또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전국의 과소화마을은 3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 감소세가 최근 둔화하고 있지만 마을 과소화 현상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전남지역 과소화마을은 지난 2005년 505개에서 2010년 780개로 증가했고, 전북은 같은 기간 714개에서 1027개로 늘었다. 전남·북에 전국 과소화마을의 절반이 있는 샘이다.

과소화마을은 자매결연, 체육관, 농수산물 직거래 등 도농교류에서 소외됐다. 농어촌 마을의 약 20%가 도농교류에 참여했으나 과소화마을의 참여율은 11.2%에 그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복수 마을을 연계해 공동체 기능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내달 개소 광주 트라우마센터 인력 공모

### “10월 ‘F1대회’ 정보 실시간 확인하세요”

#### 조직위, 스마트폰 어플 출시

시설물에 대한 방향과 거리정보를 보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음식점이나 숙박정보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연중 경주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나 기획 행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F1 대회의 다양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갤러리’를 통해 볼 수 있다.

F1 조직위 서이남 공보팀장은 “트위터나 동호회 등 SNS를 활용한 광고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로저기자 kroh@kwangju.co.kr

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이 센터는 광주도시공사 건물에 임시 설치되며 내년에는 5·18기념센터 부근에 단독 센터를 지어 입주할 예정이다.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치유팀·재활복지팀·기획연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5·18 당시 직접 피해자 및 유족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권력 피해자도 치료하게 된다.

센터장은 오는 13일, 사업수행 인력은 20일 각 면접심사 등을 거쳐 22

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광주시는 오는 7월 트라우마

(Trauma)

센터 개소를 앞두고 센터

장과 텁장 등 직원 10명(센터장 1, 텁장 3, 텁원 5, 행정보조 1)을 공개 모집한다.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전국 단위 공모로 진행되며, 센터장은 11 일까지 그리고 텁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은 14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한다.

센터장은 오는 13일, 사업수행 인력은 20일 각 면접심사 등을 거쳐 22

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이 센터는 광주도시공사 건물에 임시

설치되며 내년에는 5·18기념센터 부

근에 단독 센터를 지어 입주할 예정

이다.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치유팀·재활복지팀·기획연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5·18 당시 직접

피해자 및 유족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권력 피해자도 치료하게 된다.

센터장은 오는 13일, 사업수행 인력은 20일 각 면접심사 등을 거쳐 22

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이 센터는 광주도시공사 건물에 임시

설치되며 내년에는 5·18기념센터 부

근에 단독 센터를 지어 입주할 예정

이다.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치유팀·재활복지팀·기획연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5·18 당시 직접

피해자 및 유족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권력 피해자도 치료하게 된다.

센터장은 오는 13일, 사업수행 인력은 20일 각 면접심사 등을 거쳐 22

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이 센터는 광주도시공사 건물에 임시

설치되며 내년에는 5·18기념센터 부

근에 단독 센터를 지어 입주할 예정

이다.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치유팀·재활복지팀·기획연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5·18 당시 직접

피해자 및 유족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권력 피해자도 치료하게 된다.

센터장은 오는 13일, 사업수행 인력은 20일 각 면접심사 등을 거쳐 22

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이 센터는 광주도시공사 건물에 임시

설치되며 내년에는 5·18기념센터 부

근에 단독 센터를 지어 입주할 예정

이다.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치유팀·재활복지팀·기획연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5·18 당시 직접

피해자 및 유족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권력 피해자도 치료하게 된다.

센터장은 오는 13일, 사업수행 인력은 20일 각 면접심사 등을 거쳐 22

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이 센터는 광주도시공사 건물에 임시

설치되며 내년에는 5·18기념센터 부

근에 단독 센터를 지어 입주할 예정

이다.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치유팀·재활복지팀·기획연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5·18 당시 직접

피해자 및 유족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권력 피해자도 치료하게 된다.

센터장은 오는 13일, 사업수행 인력은 20일 각 면접심사 등을 거쳐 22

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이 센터는 광주도시공사 건물에 임시

설치되며 내년에는 5·18기념센터 부

근에 단독 센터를 지어 입주할 예정

이다.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치유팀·재활복지팀·기획연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5·18 당시 직접

피해자 및 유족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권력 피해자도 치료하게 된다.

센터장은 오는 13일, 사업수행 인력은 20일 각 면접심사 등을 거쳐 22

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이 센터는 광주도시공사 건물에 임시

설치되며 내년에는 5·18기념센터 부